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
콜라보레이터 초대 및 페스티벌 소개

언유주얼한 세션을 열 콜라보레이터를 초대합니다.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USF Seoul)은?

- 3일간 다양한 섹터의 개인 또는 조직들이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나누는 장입니다.
- 어디서든 열릴 수 있고, 누구나 열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형식의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콜라보레이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콜라보레이터가 되면?

- 페스티벌 기간동안 각자의 대화 주제에 맞는 세션을 직접 기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션을 여는 것 외에도 콜라보레이터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조직과 함께 공통의 주제로 세션을 열 수 있습니다.
- 세션을 열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관의 채널을 통해 페스티벌을 함께 홍보합니다.
- 재능 나눔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관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도 콜라보레이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을 여는 콜라보레이터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USF Seoul은 재정적 지원 없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지고 이뤄집니다.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많은 협력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씨닷과 식스는 이러한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통해 세션을 여는 콜라보레이터와 함께 합니다.

- 세션 큐레이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획과 형식에 대한 큐레이션을 씨닷과 식스가 함께 합니다.
- 콜라보레이터 네트워킹 워크숍: 세션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콜라보레이터들 간의 색다른 협력을 만들어낼 언유주얼한 만남의 장입니다. (9월 13일, 10월 17일 두차례)
- 세션에 필요한 요소 : USF Seoul에 함께 하는 다양한 콜라보레이터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원(공간, 시간, 재능 등)의 연결을 통해 세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의 장이 준비되고 있나요?

Workidshop

새로운 워라벨을 꿈꾸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세션. Workidshop이 열리는 공간에서 엄마 아빠는 일하고 아이들은 함께 뛰어 노니다. 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일하는 공간을 보여줌으로써 아이에게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합니다.

#진저티프로젝트 #위커넥트가 함께 합니다.

소셜한 그대의 마음챙김

심리상담이나 정신분석이 한국은 터부시 되고 장벽이 높습니다. 아직은 낯설은 서로의 마음챙김을 위해 스타트업 대표, 창업가, 개인 휴식 중인 퇴사자, 활동가들이 포근한 쿠션과 따뜻한 차가 있는 공간에 모여 각자의 마음 안부를 묻고, 마음챙김 노하우를 나눕니다.

#이재흥님, 김지연님 #개인도_세션을_열수_있어요 #소규모

암경험자 공감워크숍 & 나우작은음악회

암경험자가 살기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디자인씽킹 방식을 통해 암생존자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솔루션을 도출해 봅니다. 워크숍 이후에는 암 경험자들의 공연관람을 통해 깊은 공감의 장을 마련합니다.

#나우 프로젝트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로 세션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인 혹은 기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세션을 열고자 하는 분들은 적극 참여 및 연락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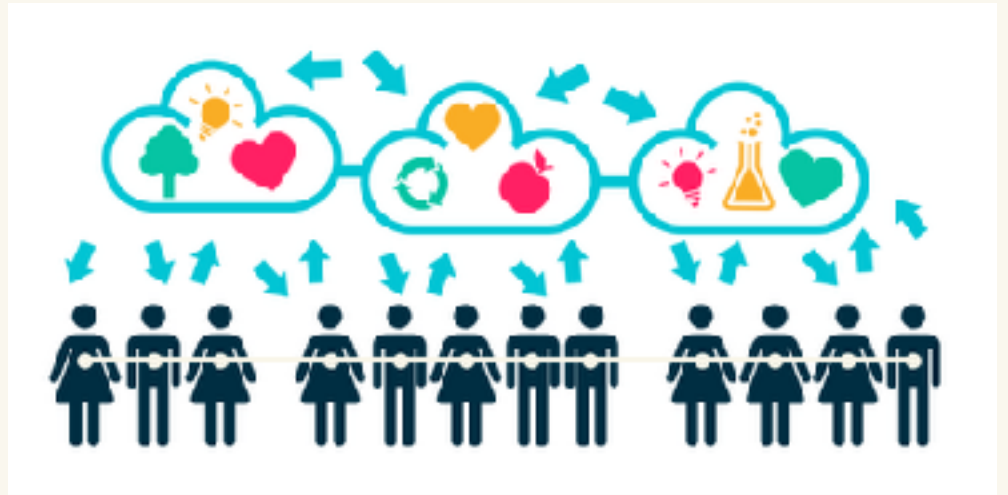
관련 연락은?

- 콜라보레이터 신청: <https://goo.gl/ezN139>
- 신청마감 : 9월 17일 월요일
- 홈페이지 : <https://theunusalsuspectsfestival.com/>
- 문의 : 씨닷 최지은 언유주얼서스펙트 페스티벌 매니저 c.jieunchoi@gmail.com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을 소개합니다.

1.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이란

글로벌 사회혁신 커뮤니티인 식스는 다양한 섹터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도시 내 다양한 곳에서 각자의 자발적인 세션을 진행하는 협력적 행사입니다. 사회혁신이라는 단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서로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며,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맥락 및 개별 세션에 제안된 주제에 따라 주제와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런던을 시작으로 글래스고, 북 아일랜드, 그리고 다시 런던에 돌아온 4년의 여정동안 주제는 각 해마다 참여하는 사람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2016년 북아일랜드에서는 이 곳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갈등을 역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반영하여 갈등 통합과 관련된 주제가 다뤄졌으며, 브렉시트 1년 후 시점에서 진행된 런던 행사에서는 당시 사회상을 고려하여 도시 속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한 도시 안에서 소속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으며 도시에 사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 또한 서울의 사회경제/문화의 요소와 사회혁신 영역 내 이슈들을 읽고 종합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이란 (앞에서 이어짐)

지난 4년간의 주제

- 2014년 런던: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협력의 힘
- 2015년 글라스고: 변화를 위한 의지와 사람들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2016년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다.
- 2017년 런던: 임파워먼트,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

왜 서울에서 진행하나요?

10여년 전 사회혁신이 국내 시민사회에 처음 소개되었고, 서울시가 지난 6년간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양한 정책 수준에서 사회혁신을 촉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단위의 실험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들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사회혁신의 사례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추진단을 꾸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시도와 경험들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혁신을 둘러싼 담론은 점차 확장되어 가는데, 아쉽게도 사회혁신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활동에 대한 깊이있는 대화의 장은 부족해 보입니다. 현장의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과정보다는 결과, 임팩트보다는 성과에 집중되어 가로막힌채 각자의 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지 서로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 과정과 성과를 깊이있게 회고해보는 자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씨앗과 식스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고 구현해보려 합니다.

2. USF Seoul을 통한 기대

-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과 관점
- 누구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을 통해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을 갖고 다른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섹터를 넘고 다름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와 이슈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이전을 회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USF Seoul을 통한 기대 (앞에서 이어짐)

- 협력의 방식을 새롭게 실험하고 경험
-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에서는 협력의 방향과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세션을 여는 콜라보레이터 이외에도 각자가 가진 자원을 본 페스티벌을 위해 공유해주는 다양한 콜라보레이터들이 함께 하며, 서로 연결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기회와 방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세션을 기획 및 준비할 수 있으며, 서로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협력의 새로운 방식은 USF Seoul을 준비하는 씨앗과 식스 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으나 구체적인 협력의 경험은 이번이 처음인 두 기관도 화학적 협력을 위해 수시로 온/오프라인에서 만나며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USF Seoul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정: 2018년 11월 1일(목) ~ 3일(토) 3일간
- 장소: 서울혁신파크, 성수동 및 각 세션이 열리는 서울 곳곳
- 홈페이지: theunusualsuspectsfestival.com
- 세션 콜라보레이터: 진저티프로젝트, 청년허브, 빠띠, 모더레이션랩 등 다양한 개인 및 기관

프로그램

	11월 1일(목)	11월 2일(금)	11월 3일(토)
오전	오프닝 (혁신파크)	세션	세션
오후	세션	세션	클로징 (성수동)

※ 3일간 최소 15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USF Seoul의 진행과정

행사 관련 진행 과정

USF Seoul 킥오프 모임	8/1	관심있는 개인 및 기관에게 USF Seoul을 소개하고 잠재적 콜라보레이터들의 참여를 독려
참가자 모집	10/1~	USF Seoul의 각 세션에 참여할 일반 참가자 모집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11/1 ~ 11/3	3일 동안 서울 전역에서 그간 준비해 온 다양한 세션이 진행
후속모임	11월 말 예정	USF Seoul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아이디어와 상상을 나누는 마무리 자리

4. USF Seoul의 진행과정 (앞에서 이어짐)

콜라보레이터 관련 진행 과정

아이디어 익스체인지 워크숍	8/10	USF Seoul을 소개하고 대화 주제를 공유하고 구체화해보는 워크숍
콜라보레이터 모집	~9/17	다양한 방식으로 USF Seoul을 함께 만들 콜라보레이터 모집
콜라보레이터 네트워킹	9/13, 10/17	각 세션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콜라보레이터 간의 협력 지점을 이야기하는 네트워킹 시간 (2회)
씨닷과 식스가 함께 하는 세션 큐레이션	상시	콜라보레이터들이 준비하는 세션의 내용과 형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큐레이션 미팅

5. USF Seoul의 차별점

- 주제와 형식, 규모에 장벽없이 누구나 세션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USF Seoul의 과정 자체가 협력이며, 만드는 과정에서 콜라보레이터들 간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의 기회들이 만들어져 더욱 풍성한 대화를 준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 나누고 싶은 대화가 적합한 형식과 만나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씨닷과 식스가 경험을 공유하고 큐레이션 합니다.

6. 만나고 있는 사람들

비전화공방, 위커넥트, 카우앤독, 더함, 진저티프로젝트, 루트임팩트,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청년허브, 공공그라운드, 나눔과 미래, 프리즘, 크리킨디 센터, 서울 엔피오 지원센터, 에자이 코리아, 건강혁신 살림의원, 서울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리질리언스 네트워크, CODE, 이재흥, 빠띠, 로컬리티, MaD, 아산나눔재단, Lab 2050,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

※ 색으로 표시된 곳은 확정된 개인 및 기관

7. 만드는 사람들



서울혁신파크
www.innovationpark.kr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써, 시민 누구나 혁신가가 되어 일상의 변화를 이뤄내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혁신파크 중앙에 위치한 미래청을 비롯해 재생동, 제작동, 예술동 등에 230여 단체 1,200여 명에 이르는 혁신가들이 상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실험과 연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ocial Innovation Exchange
www.socialinnovationexchange.org

SIX는 영국에서 시작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계, 연구소, 지방정부, 글로벌기업에 이르기까지 4,000여개의 기관과 개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이룬 단체입니다.



씨닷
www.cdota.asia

씨닷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연결과 소통을 통해 사회혁신의 발전과 확산을 촉진하는 기관입니다. 의미있는 국제교류 활동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자문, 스터디투어, 연구, 플랫폼 및 네트워크 기획/ 운영을 통해 아시아의 사회혁신가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